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바로 알지 못하면 실천도 바를 수 없어

우리가 이 지구 안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불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불'이요, 또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사는 그 삶이 바로 '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라는 그 단어는 진리인 것이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그러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바로 알고 실행을 할 때 그게 정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고 자꾸 방황하고 바깥으로 그달리고 이리다던 그 실천에 옮겨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몸통이라는 그 한 개체나, 지구라는 그 공기 주머니나 마찬가지로 인 것이, 만약에 지구라는 그 공기주머니가 버스가라고 한다면 우리 그 버스 안에서 살고 있는 일체의 생명들입니다. 종교란 우리가 질서를 지켜 나가기 위함이고, 또 나쁜 일을 안 하게끔 하기 위함이고, 또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함이고, 모든 일에 좋은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가 진리인 줄 알지 마세요. 종교라는 이름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디서 태어나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구 안에서 일체 만물만생이 살듯이 우리 몸 안에서 일체 만물만생이 바로 생명과 의식·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몸통이 속에서 그 수많은 생명들이 여럿을 통해서 진화해서 형성되고, 또 형성돼서 진화했다는 이 사실을 판단을 못하십니까. 물론 판단할 수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세상을 여여하게 살 수 있는가? 어디서 우리를 지배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인간이 스스로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가? 마음으로서 없다·있다는 떠나서 들고 내는 그 마음은 또 어디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음이란 자유스럽게 쓰고 있는가? 그 글을 하기 이전에 이런 말을 한 마디 하고 싶군요. 지·수·화·풍으로부터 미생물이 생겼습니다. 지·수·풍이 한데 합치면 거기서 온기가 생기고 생명체가 생기는 거죠. 여러가지가 다 생기고 사람

질서를 지키고
나쁜 일 안하고
자녀를 잘 기르며
모든일 좋게 하기위해
종교가 있는 겁니다

은 제일 나중에 형성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생물로 태어나서 진화되고 형성되고 또 살면서 또 진화되고 이렇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아니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또 형성되고 진화되고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하면서 인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때서부터 생각을 한다면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 아님도 없구요. 내 모습 아님도 없고, 내 한도량 아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각자가 어디서 그냥 떨어진 줄 알지 마세요. 동일하게 서로 서로에 응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그걸 알고, 넓게 보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내 생명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라고 하더라도 내 도량 아닌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 뿐만 아니라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가는 그 움직임이 다 우리의 한도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구 안에서 사는 것도 지구가 우리의 생명들의 집합소밖에 안됩니다. 우리 몸통이도 생명들의 집합소밖에 안되고요, 집이예요 그냥. 그 집 속에서 더욱 묘한 것은 말없이 모습과 의식과 생명들이 보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예전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인간까지 왔노라'고 말입니다. 지구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한 발짝 벗어나 수가 없어요. 한 발짝만 벗어났다 하면 죽지요. 인간의 몸통이 속에서 생명들이 이 몸통이 밖을 한 발짝만 벗어났다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아주 선명하게, 사람들이



그림·최주현

보고 듣고 말하는게 고정되지 않으니 '空' 생각이 모자라니 팔자운명 따지게 되죠

사는 모든 모습이 진실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싸웁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상대가 있는 것이고, 종교도 있고 모든 삶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없다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쑥 빼놓고 '주여! 부처님이시여!' 하고 이름과 형상을 받고 찾고 기도하고 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이 지구 안을 벗어날 수 있었어, 어떻게 내 몸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수많은 마음을 쓰면서도 쓴 사이가 없으며 또 마음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마음으로 썼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울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데 어떻게 쓴 것이 마음으로 쓴 것입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예를 들어서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었습니까? 모두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까? 또 내 모습이라고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름해서 그것도 부처님이라고 한 겁니다. 즉 부처님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것이 고정된 게 있습니까? 듣는 것이 고정됩니까? 말하는 것이 고

정됩니까? 말하는 것이 고정됩니까? 말하는 것이 고정됩니까?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저것 보면 이것 봐야 하고,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야 하고 천차만별로 그저 항상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바람결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공했다고 합니다. 초월했다는 얘기도요.
여러분은 그렇게 초월해서 살면서도 항상 '내가 했다. 내가 봤다'고 하셨습니까? 또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산다. 내가 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돈을 벌었다. 망한 것은 상대방에서 망하게 했다.' 이러거든요. 모두, 왜 인간이 자기를 좀 더 보지 못하십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데 고정된 그 일만 했느냐? 집에 와서

또 다른 일을 했느냐? 저기 가서 또 다른 일을 했느냐? 할 때 어떤 것을 했을 때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몸통이 속에는 만 중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라는 뜻에서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형성되고 진화했느냐라 하는 뜻이죠.

그러니 '모든 생명들을 네 생명과 같이 아껴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그 몸통이 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을 마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잡수신 겁니까? 몸 속에 있는 생명들이 나누어 먹은 겁니까? 더불어 같이 나누어 먹은 것이죠. 나누어 먹었을 때 나누어서 모든 게 작용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주니가 먹고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작용을 안 해주면 여러분은 송장이 되니까요.

여러분의 근본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자기 주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이름과 형상을 보고서 기도를 하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모르면서 그래요. 자기 자성이 즉 자기 주체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로 세상이 벌어진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몸 속에 생명들이 전부 여러분이 움직여줄 수 있도록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움직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철저히 진실하고 거침이 없고 질서정연합니다. 내가 해야 내가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행복한 거지, 남이 행복한 걸 갖다 주거나 뺏아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배부르게 밥 먹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똥 누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또 잠을 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주고 죽여주고 깨달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홀로 와서 홀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는데 길에서 길을 찾는다는 말도 있지요. 길은 육이 다니는 길이고 마음이 다니는 길은 길아닌 길이거든요. 가고 육이 없이 가고 오고,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도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고 오셨지요.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86)

수도꼭지 잠구어 놓고 우물 물 길어다 먹으려나.

"만물 만생의 근본이 하나로 뭉쳐서 시공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를 한마음이라 하니 내 한마음 주인 공은 전체로 가실된 자가 발전소와 같이 무한량의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 그 에너지야말로 내 몸이 아프면 의사가 되어주기도 하고 약사보살이 되기도 하며 지장보살이 되어 내 명을 때었다 볼수도 할 수도 있다."

예전에 우물 물을 길어다 먹던 시절엔 집집마다 커다란 물동이 있었다. 거기에 항상 물을 가득히 채워두고 사용했다.

그러나 요즘엔 몇 병의 식수가 있을 뿐 물독은 사라지고 없다. 우리 모두 물 없는 집에서 산다. 하지만 아무도 물 걱정을 하지 않는다. 꼭지만 돌리면 언제라도 물이 팔팔 쏟아지게 때문이다. 그야말로 '물 쓰듯이' 아무 때나 원하는만큼 쓸 수 있기에 물 없는 집에서 살면서도 물 걱정을 하지 않는다. 전기도 마찬가지로. 자가발전기를 소유하지 않아도 걱정이 없다. 스위치만 올리면 언제든 쓸 수 있으니 전기 걱정이랄 기우일 뿐이다. 그럼에도 물 걱정 전기 걱정을 하며

산다면 그는 분명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각자는 무한량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발전소. 무한정도로 물을 공급해주는 바다를 가슴 속에 품고 산다. 퍼내어도 퍼내어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바다. 수천 수만의 등을 쳐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발전소. 내 작은 가슴 속에 그런 게 있다.

무엇이든지 한 생각 내는 대로 켜면 켜고 돌리려면 돌릴 수 있는 무한량의 에너지 보고가 내게 있다. 신본의 눈빛이에도 관계없고 학식의 맑고 적응에도 관계없고 성별에도 관계가 없고 잘나고 못나고와도 무관한 보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크게 쓰려면 크게 쓰고 작게 쓰려면 작게 쓰고, 선하게 쓰려고 하면 선하게 쓰고 악하게 쓰려면 악하게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자동적인 보고가 있다.

그 에너지의 보고는,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 밥 짓고 빨래하고 허드렛일에 물을 마음껏 쓰듯이 각자가 마음 먹기에 따라 의사로서 약사로서 혹은



관세음보살로서 지장보살로서 응하고 나누어 준다. 그러나 각자는 부자로 치면 억만장자로 권력자로 치면 자제 천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얼마나 반갑고 든든한 소식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물 걱정 전기 걱정을 하며 살고 있다. 억만장자 자제 천왕이 부럽지 않을 보고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살 걱정으로 허구한 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

무엇이 되었든지, 한 생각 내는 대로 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그런 능력은 제쳐놓고 스스로 가난하다 모자란다 힘이 없다 하면서 전전공공한다. 신세를 한탄하고 팔자운명을 탓하고 우왕좌왕하며 산다.

믿음이 약한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 무한의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니 일마다 '어찌해야 하나' 걱정부터 하게 되고 말끝마다 '능력이 있어야지' 하며 주춤거리게 된다.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도 스위치를 올리 지 않고 촛불을 켜고 사는 것과

꼭지만 돌리면 물이 팔팔 쏟아지게 되어 있는데도 우물찾아 물 길러 다니는 것과 같다.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원력은 믿는만큼 나온다. 믿는동안 등 하면 힘도 나오는동안 마는동안. 목숨 때어놓고 믿으면 힘은 무한량으로 솟구친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많이 쓰려거든 크게 믿고 적게 쓰려거든 건성 믿어도 된다. 걱정이 없어야 살려거든 생각나기 이전 마음의 중심에 일체를 놓고 가라. 그런 믿음은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린다.

"마음근본의 자가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라 할 수 있다. 아니, 태양보다 더한 빛으로 충만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무한으로 쓸 수 있다. 누구에게나 그런 능력이 주어졌으니 이는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우리들의 법이다."

협찬 : 최광업 최우영 최우성 최우진